

# 세계도시동향

Global Urban Trend

**헤드라인뉴스** 역사고도의 유적을 시민 휴식공간과 국제교류의 장으로 활용

**문화·관광** 지역 브랜딩을 위한 영화산업 육성기금 조성  
겨울철 레저활동을 위해 태양열을 이용한 '온실 오두막·돔' 설치

**행재정·교육** 지역 정체성 강화를 위한 시민참여 프로그램 실시

**환경·안전** 수변 감성도시 프로젝트 '생명의 강' 사업 추진

**도시계획·주택** 공공시설을 전통과 자연이 융합된 '열린 성(城)' 구조로 건축

## 세계도시동향 해외통신원

---

### 〈북·중·남미〉

뉴욕	윤규근
로스앤젤레스	최윤경
샌디에이고	김민희
샌프란시스코	박신아
시카고	강기향
올랜도	박혜진
워싱턴 D.C.	이정근
하와이	임지연
휴스턴	이경선
에드먼턴	장지훈
토론토	고한나

### 〈아시아·아프리카〉

쿠알라룸푸르	홍성아
싱가포르	이은주
뉴델리	박원빈
	박효택
자카르타	박재현
도쿄	이선인
광저우	손지현
베이징	정민욱
상하이	문혜정
충칭	모종혁
칭다오	강경이
나이로비	한 울

### 〈유럽〉

암스테르담	장한빛
베를린	신희완
	유진경
	홍남명
프랑크푸르트	이은희
하노버	이희재
스톡홀름	허윤희
바르셀로나	박정수
	진광선
런던	이용훈
로마	서동화
피렌체	김예름
보르도	김준광
파리	김나래

# 역사고도의 유적을 시민 휴식공간과 국제교류의 장으로 활용

중국 시안시 / 문화·관광

중국 역대 13개 왕조가 흥망성쇠를 했던 시안시는 도시 곳곳에 진귀한 역사유적이 산재. 2008년부터 당나라 황실사찰 탐이었던 대안탑을 배경으로 분수쇼를 진행하여, 시민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자부심과 자긍심을 심어줌. 1993년부터는 명나라 때 건설된 성곽에서 세계에서 유일한 '성곽 위 마라톤'을 개최하여 국제교류의 장으로 활용

## 역대 13개의 왕조가 흥망성쇠를 했던 고도(古都)

- 시안(西安)시는 산시(陝西)성의 성도(省都)로, 기원전 300여 년 춘추전국시대의 작은 나라였던 서주(西周)부터 907년에 멸망한 세계제국 당나라까지 13개 왕조의 수도로 흥망성쇠를 누렸던 중국의 대표적인 역사고도(古都)
  - 시안의 옛 이름은 한나라의 수도 시절부터 썼던 장안(長安)으로, 당나라 때 장안의 인구가 100만 명에 달했던 세계 최대의 도시였음
    - 현재 시안시 중심과 외곽에는 진시황릉뿐만 아니라 한나라와 당나라 황제들의 무덤, 한나라와 당나라의 황궁터, 당나라 황실사찰인 자은사와 흥교사 등이 산재

## 황실사찰 탐을 배경으로 펼쳐지는 분수쇼

- 당나라 황실사찰이었던 자은사(慈恩寺)의 대안탑(大雁塔)을 배경으로 3월부터 11월 까지 매일 낮 12시, 오후 4시, 저녁 7시와 9시 등 4차례에 걸쳐, 계절마다 주제를 바꿔 가며 20~30분 동안 중국 최대 규모의 '대안탑 분수쇼'를 진행
  - 자은사는 648년 당 고종이 어머니의 명복을 빌고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慈母恩德) 창건한 황실사찰로, 고종은 날마다 황궁에서 자은사를 향해 예배를 드렸음
    - 전성기에는 승방(僧坊)이 1,897칸에 달할 정도로 규모가 컸으나, 당대 말기 전란으로 사찰은 불타 없어지고 대안탑만 남았음
  - 대안탑은 652년 인도를 방문하여 '대당서역기'를 남긴 현장(玄奘)이 당나라 황실에 건의해서 지었는데, 높이가 65m, 둘레는 25m에 달함
    - 현장은 인도에서 가져온 불경과 중국에서 번역한 경전을 보관하기 위해서 대안탑을 지었는데, 탑 안에 보관됐던 불경과 경전은 무사히 오늘날까지 전래

- ‘대안탑 분수쇼’는 시안市가 2008년 베이징(北京)올림픽 개최 기간 중 저녁에 열었던 단발성 이벤트였으나, 시안 시민들의 반응이 열광적이었기에 올림픽 이후에도 계속해서 열어 시안을 대표하는 감성적이고 낭만적인 문화 상품으로 발돋움
  - 시안市 정부는 누적 공사비가 5억 위안(약 950억 원)에 달할 정도로 꾸준하게 투자하여 전체 면적이 2만㎡에 달하는 거대한 분수대를 만들었고, 분수대 좌우로 녹음(綠陰)이 우거진 공원을 조성
    - ‘대안탑 분수쇼’를 할 때는 날마다 중국 전역에서 몰려온 관광객으로 장사진을 이루는데, 이전보다 대안탑 관람객이 훨씬 많이 늘어나고 주변 상권도 엄청나게 커지는 낙수(落水) 효과를 톡톡히 누림
    - 시안 시민들에게는 거대하고 화려하며 환상적인 ‘대안탑 분수쇼’를 통해 중국인들이 가장 자랑스럽게 여기는 고대 왕조인 당나라의 수도에 사는 시민이라는 자부심과 자긍심을 심어줌



[사진] 자은사의 대안탑을 배경으로 펼쳐지는 환상적인 분수쇼 (출처: 필자 직접 촬영)

### 명나라 성곽 위에서 열리는 국제마라톤

- 시안市 중심을 둘러싼 시안성곽에서는 해마다 국제마라톤대회가 개최되는데, 고대 성곽 위에서 열리는 마라톤대회로는 ‘시안성곽국제마라톤’이 전 세계에서 유일
  - 시안성곽은 명나라 태조 1370년에 착공해서 1378년에 완공했는데, 잔존했던 당나라 장안성을 기초로 하여 길이는 동벽 2,886m, 서벽 2,706m, 남벽 4,256m, 북벽 4,262m 등 총 길이가 13,912m에 달하는 규모임

- 시안성곽은 높이가 12m이고, 성벽의 위쪽 폭은 12~14m, 아래쪽 폭은 15~18m로, 오늘날 중국 고대 성곽 중 규모가 가장 크고 보존 상태가 가장 완벽
- ‘시안성곽국제마라톤’은 1993년에 시안 시민만 참가하는 레크리에이션 행사로 한 동안 진행됐으나, 시안성곽이 튼튼하게 지어졌기에 참가 인원을 차츰 늘렸고, 2000년부터는 국제마라톤대회로 성격을 바꾸어 개최해 오고 있음
  - 코로나19 사태 직전인 2019년에는 전 세계 28개 국가와 중국 각지에서 온 5,000 명이 참가하는 역대 최대 규모로 열었는데, 시안성곽은 아무런 문제가 없었음
    - 외국 참가자는 당초 시안市와 자매결연을 한 해외 도시의 육상팀이 중심이었으나, 최근에 이색적인 마라톤대회로 알려지면서 일반인이 크게 증가



[사진] 고대성곽에서 열리는 시안성곽국제마라톤대회 (출처: CGTN 유튜브채널)

- 세계 유일의 ‘성곽 위 마라톤’이고, 세계 각국과 중국 각지에서 온 마라톤 선수 및 애호가와 함께 달리는 교류의 장이기에 해마다 참가 신청 경쟁이 치열
  - 참가자들은 대회를 전후해서 유서 깊은 역사고도인 시안市 곳곳을 관광하고 돌아가기에, 관광업계에 미치는 낙수효과도 상당히 큼

<https://baike.baidu.com/item/西安/121614>

<https://baijiahao.baidu.com/s?id=1679899596945976088>

<https://baijiahao.baidu.com/s?id=1687586495717665858>

<https://baike.baidu.com/item/西安城墙国际马拉松>

[https://www.youtube.com/watch?v=xBy\\_bCKEHC0](https://www.youtube.com/watch?v=xBy_bCKEHC0)

모종혁 통신원, jhmo71@naver.com

# 지역 브랜딩을 위한 영화산업 육성기금 조성

인도 델리 NCT<sup>1)</sup> / 문화·관광

델리 NCT 정부는 영화산업 인프라 구축을 위해 델리영화기금을 조성하고자 함. 기금을 통해 영화 제작 보조금 지원, 국제 영화제 신설, 영화 촬영 관련 행정 시스템 간소화, 전문인력 양성 등으로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여 영화산업을 지역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하고자 함

## 정책적 배경

- 델리 NCT 지역은 수도권 권역의 중공업 활성화 금지와 같은 규제에 대한 대안으로 영화산업과 관광업 등의 서비스업 발전을 위한 대안 제시 필요
  - 특히 수도권 권역임에도 불구하고 세계적으로 미약한 지역 이미지를 지역 내 영화 산업 활성화를 통한 브랜딩으로 제고하고자 함
- 할리우드 기반의 인도 대규모 영화시장에도 불구하고, 국제 수준의 영화제는 고아 (Goa) 지역에서만 매년 개최되고 있어서 영화제 신설에 대한 수요가 존재

## 주요 내용

- 델리 NCT 정부는 2022-23년도 기준으로 3억 루피(약 49억 원)의 예산으로 델리영화기금을 조성하여 지역 영화산업 활성화를 위한 2022년 델리 영화정책(Delhi Film Policy 2022)을 추진하고 있음
  - 델리 관광교통개발국(DTTDC) 내 델리 영화진흥원을 설립하여 델리 지역을 영화 제작의 허브로서 역할을 부여하여 영화산업 생태계를 구축 중임
- 지역 이미지에 대한 긍정적 브랜딩을 구축하기 위해 지역 내에서 영화를 촬영하고 조건에 부합할 때는 최대 3천만 루피(약 4억 9천만 원)의 보조금을 지급할 예정임
  - 영화 촬영일수, 로케이션 장소 노출, 현지 직원 고용 여부, 지역 브랜드화 기여도, 전체 지출액 등을 기준으로 영화제작 보조비를 책정
  - 영화제작자에게 델리영화카드를 별도 지급하여 지역 호텔, 운송, 관광 관련 서비스 활용 시 최대 100만 루피(약 1,600만 원)의 추가할인 혜택도 제공

1) 델리 NCT(National Capital Territory of Delhi)는 올드델리(Old Delhi)와 뉴델리(New Delhi)를 합친 델리 수도직할지역, 뉴델리시가 인도의 수도

- 지역 내 영화 촬영 승인을 위해 온라인 단일창구 시스템(e-Film Clearance)을 구축하여 영화 촬영에 대한 행정 시스템을 간소화하고자 함
  - 지역 내 영화 촬영을 위해 기존에는 최대 25개 관련 기관을 부처별로 방문하여 승인을 받았으나, 온라인 시스템으로 별도 방문 없이 15일 이내에 승인을 받음
- 영화산업 고급인력 공급을 위해 국립 드라마 학교, 영화 텔레비전 연구소 등 관련 교육 기관에서 연구·학습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연구비 및 장학금을 별도 지원
  -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관련 인프라를 조성하고 일자리도 제공
- 이와 같은 영화산업 활성화를 바탕으로 델리 국제 영화제를 신설하여 매년 개최하고 글로벌 영화 도시로 성장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투자할 예정임

### 정책 평가

- 영화 제작 보조금을 지급하여 지역에 대한 긍정적 브랜딩 작업을 진행하고, 기존의 복잡한 신청 시스템을 간소화하여 지역 내 영화산업 활성화를 유인할 예정으로, 지역 문화 콘텐츠 개발 및 지역 브랜딩을 통한 지역 이미지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 국제 영화제를 신설하여 전 세계 제작자를 유치하는 동시에 영화 제작에 친화적인 생태계를 조성하여 지역 관광, 교통, 문화산업 등에 경제적 파급 효과를 예상
  - 영화산업 발전을 통한 지역 일자리 창출로 지역경제에 긍정적 영향 기대

[https://www.business-standard.com/article/current-affairs/aap-govt-launches-film-policy-to-promote-delhi-as-hub-of-movie-production-122051301366\\_1.html](https://www.business-standard.com/article/current-affairs/aap-govt-launches-film-policy-to-promote-delhi-as-hub-of-movie-production-122051301366_1.html)

<https://www.indianexpress.com/article/cities/delhi/govt-to-launch-delhi-film-policy-today-7914550/>

<https://www.ndtv.com/delhi-news/delhi-approves-new-film-policy-to-give-rs-3-crore-subsidy-for-film-making-2787567>

<https://www.newindianexpress.com/cities/delhi/2022/may/14/film-policy-to-make-delhia-hub-of-movie-making-2453404.html>

<https://www.outlookindia.com/national/govt-approves-delhi-film-policy-2022-to-promote-city-as-hub-of-film-shooting-news-183919>

<https://www.thehindu.com/news/cities/Delhi/delhi-govt-launches-new-film-policy/article65411741.ece>

<https://www.thestatesman.com/cities/delhi/delhi-govt-launches-delhi-film-policy-2022-1503071578.html>

박 원 빈 통신원, samc21@naver.com

# 겨울철 레저활동을 위해 태양열을 이용한 ‘온실 오두막·돔’ 설치

캐나다 에드먼턴시 / 문화·관광

에드먼턴시는 6개월이 넘는 최저 섭씨 영하 40도의 겨울철에도 야외 활동을 보다 따뜻하게 즐길 수 있는 휴식공간이 필요하다고 판단. 이에 시는 태양열을 이용한 ‘온실 오두막·돔’을 만들어 스케이트장, 강변, 식당 등에 설치하여 시민들에게 추위를 피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

## 배경 및 목적

- 겨울철 레저활동을 위한 ‘온실 오두막·돔’ 사업은 2018년부터 시작된 지역 온난화 (Local Warming) 시범사업의 일환
  - 지역 온난화의 목적은 극심한 추위가 길게 이어지는 겨울철에 보다 활동적으로 지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임
  - 호수, 강가와 계곡 등에 따뜻한 오두막을 설치함으로써 주민들이 연중 지역사회, 도시 및 자연과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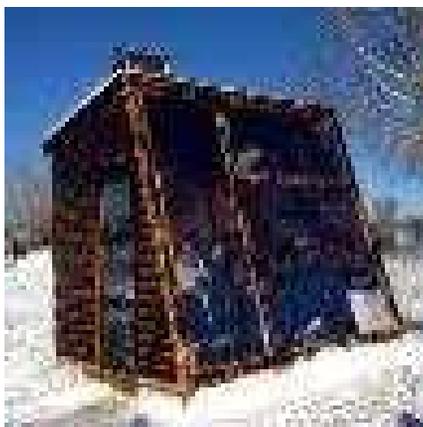
## 프로젝트의 주요 내용

- 2021년 겨울부터 겨울 스포츠를 즐기는 데 필요한 휴식과 준비 공간인 ‘온실 오두막’ 이나 ‘온실 돔’을 설치
  - 겨울철 스케이트장으로 이용되는 호수와 지역 공동체 공원에서 스케이트화 끈을 묶거나 피크닉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을 제공
  - 겨울철의 야외 활동을 더 오래 지속하도록 하기 위해 활동 전후로 몸을 녹일 수 있는 장소를 제공
- 온실 오두막·돔은 기계적인 난방 없이 태양 복사열을 받아들이는 구조로, 자연스럽게 내부 공간에 열기를 저장하고 찬바람을 막아 시민들에게 휴식처를 제공
  - 일몰 이후에도 조명을 제공하여 최소 7시간 정도의 짧은 일광 시간 이외에도 이용할 수 있게 함
  -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운영하며, 선착순으로 이용 가능



[사진] 지역 온난화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설치된 온실 돔

- 온실 오두막·돔은 난방을 위해 태양 복사열 원리를 이용해 태양열을 모으고 유지
  - 온실 오두막·돔의 주 창(窓)은 남쪽을 향하도록 해 열을 흡수함과 동시에 콘크리트 바닥에 열기를 저장한 후 단열재로 에너지 손실을 지연시킴
  - 디자인은 다니엘 소네프(Danielle Soneff)라는 지역 디자이너가 대학 재학 중 공모전에 출품한 작품을 발전시킨 것으로, 이후 市와의 협업으로 진행
  -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에는 운영을 제한
    - 앨버타州 보건 지침에 따라 한 번에 한 가족 또는 단체로 제한
    - 2m의 물리적 거리두기 적용



[사진] 스케이트를 즐기고 몸을 녹이고 있는 모습 (에드먼턴市, 디자이너 다니엘 소네프 설계)

<https://www.wintercityedmonton.ca/be-active/warming-huts/>

[https://nicelocal.ca/edmonton/building/danielle\\_soneff/](https://nicelocal.ca/edmonton/building/danielle_soneff/)

<https://www.cbc.ca/news/canada/edmonton/warming-hut-idea-could-thaw-edmonton-s-frozen-pedestrians-1.2843679>

<https://www.warminghuts.com/>

---

장지훈 통신원, macgyvar@gmail.com

# 지역 정체성 강화를 위한 시민참여 프로그램 실시

미국 플로리다주 템플 테라스시 / 행정장·교육

미국 플로리다주에 위치한 템플 테라스시(City of Temple Terrace)는 지역 주민의 정체성을 강화하고, 주민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오랜 기간 진행해 왔음. 매년 개최되어 온 프로그램들이 코로나 팬데믹 이후 취소되는 상황에서도, 소셜미디어를 활용하여 새로운 주민참여 프로그램을 고안함으로써 타 지역 주민들의 관심까지 불러일으킴

## 시민의 지역 정체성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실시

- 플로리다주 템플 테라스시(City of Temple Terrace)의 지역 정체성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 플로리다주 남동부에 위치하며, 세계에서 가장 규모가 큰 오렌지 재배지로 유명한 템플 테라스시는 코로나19 발생 전 정기적인 주민참여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지역 주민과 소통해왔음
  - 매년 정기적으로 개최되어온 다양한 프로그램이 템플 테라스 시민들의 지역 정체성과 공동체 의식을 고양해옴
- 프로그램 1: Bike Month(매년 3월)
  - 매년 3월에 개최되는 이곳의 가장 대표적인 행사인 Bike Month는 템플 테라스의 시장을 포함한 시 공무원과 지역 주민이 함께 자전거를 타는 행사로 수년 동안 이 지역의 전통으로 여겨짐
  - 템플 테라스시의 마케팅 및 커뮤니케이션 부서는 도시 내 7개의 역사적 랜드마크를 포함하는 경로를 계획하고, Tampa Bay 지역에서 걷기와 자전거 타기를 장려하는 지역 연합 단체인 Bike/Walk Tampa Bay와 협력
  - 자전거로 코스를 다 돌고, 7개의 역사적 장소에서 찍은 사진을 제출한 참가자들은 시에서 제공하는 지역 내 매장 이용권을 경품으로 받음
  - 도시의 현안에 대해 시장과 의견을 나눌 수 있는 동시에 지역 정체성에 대해 알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매년 150명이 넘는 사람들이 참가해 왔으나, 코로나19 발생 후 프로그램 진행이 지속되지 못함
- 프로그램 2: 독립기념일 퍼레이드(매년 7월)
  - 미국 독립기념일(Independence Day)이 있는 매년 7월에는 독립기념일 축제가

1970년대 중반부터 개최됨

- 독립기념일(7월 4일) 오전에는 시민들이 지역을 행진하고 저녁에는 커뮤니티 모임과 불꽃놀이가 열렸으나,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2020년부터 행사가 취소
- **코로나19 발생 이후 새로운 형태의 시민참여 프로그램 고안**
  - 코로나19 발생 이후, 매년 개최되어온 지역 행사들이 사회적 거리두기의 일환으로 모두 취소되거나 연기됨
  - 템플 테라스市的 마케팅 및 커뮤니케이션 부서는 지역 주민들이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으면서도, 그들의 관심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혁신적인 방법들을 고안

### **소셜미디어와 온라인을 중심으로 한 지역주민 참여 프로그램 실시**

- **프로그램 3: Where's Temple**
  - 템플 테라스市는 페이스북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市의 역사적 명소와 숨겨진 장소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Where's Temple' 프로젝트를 진행
  - 템플 테라스市的 마케팅 및 커뮤니케이션 부서는 지역의 여러 장소에서 사진을 찍어, 매일 한 장의 사진을 페이스북에 게시
  - 페이스북 이용자들은 사진 속 장소가 어디인지에 대한 정보를 댓글을 통해 공유하고, 정답을 맞힌 사람 중 한 명이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어 템플 테라스市에 위치한 지역 레스토랑에서 사용할 수 있는 50달러 상당의 상품권을 받음
  - 이 프로젝트는 템플 테라스市 인근 도시의 페이스북 이용자들에게도 큰 호응을 얻어, 플로리다주가 가을에 주최하는 市정부 주간(Florida City Government Week) 동안 플로리다 내 다른 지역에서도 개최될 예정
- **프로그램 4: 독립기념일 프로젝트**
  - 2021년 7월 템플 테라스 예술위원회(Temple Terrace Arts Council)는 붉은색, 흰색, 파란색 장식을 활용하여 집 앞 정원을 꾸미는 대회를 개최하여, 코로나 팬데믹 기간 중에도 독립을 기념하고자 함
  - 소셜미디어를 비롯하여 市가 운영하는 웹사이트 및 지역 미디어를 통해 참가 신청을 한 시민과 지역 기업은 애국심을 나타내는 장식으로 정원이나 시설을 꾸밈
  - 이 프로젝트에 40여 개의 팀(개인 및 단체)이 참가하였으며, 모든 참가자의 집 주소가 공개되어 사람들이 차를 몰고 다니며 감상할 수 있도록 함

<https://www.facebook.com/CityOfTempleTerrace>

<https://www.templeterraceartscouncil.org/>

<https://www.templeterrace.com/113/Marketing-Communications>

<https://www.abcactionnews.com/news/region-sarasota-manatee/sarasota-couple-hosts-drive-by-july-4th-celebration-events-you-can-check-out-in-tampa-bay>

---

박혜진 통신원, hj2201@ufl.edu

# 수변 감성도시 프로젝트 '생명의 강' 사업 추진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시 / 환경·안전

말레이시아 정부는 쿠알라룸푸르시의 수질 정화, 심미적·경관적 기능 회복, 상업지구 및 관광지 조성 등을 핵심과제로 제시한 생명의 강(River of Life) 프로젝트를 추진

## 배경

- 쿠알라룸푸르 환경생태 및 역사문화 복원 문제
  - 말레이시아 정부는 쿠알라룸푸르 도시 내 고질적인 수질 오염 문제를 개선하고 문화·관광 공간을 조성하고자 생명의 강(River of Life, RoL) 프로젝트를 기획
    - 2021년 12월 2일 개최된 '도시 엑스포 말레이시아 2021'에서 쿠알라룸푸르시 프로젝트 관리부서장 아즈미 압둘 하미드(Azmi Abdul Hamid)는 쿠알라룸푸르 역사 건축물을 상호 연계해 역사 탐방을 하는 공간으로 만들겠다고 발표

## 생명의 강 프로젝트 주요 내용

- 생명의 강(River of Life) 프로젝트 계획
  - 말레이시아 천연자원·환경부(The Ministry of Natural Resources and Environment)는 2011년 7월 환경보호, 도심 발전을 위해 쿠알라룸푸르를 포함한 수도권인 클랑밸리 내 110km에 달하는 8곳의 강 인근을 정비하는 생명의 강 프로젝트 계획을 발표
  - 2024년 완공 예정으로, 생명의 강 프로젝트는 쿠알라룸푸르시의 한강 격인 클랑강, 고펜강을 포함
    - 쿠알라룸푸르는 '진흙이 만나는 곳'이라는 뜻으로, 클랑강과 고펜강의 합류 지점에 지어진 도시라는 점에서 이 사업은 의미가 있음
  - 사업의 총예산은 44억 링깃(약 1조 2,721억 원)으로, 말레이시아 중앙정부의 관개·배수부서(Department of Irrigation and Drainage Malaysia, DID)와 쿠알라룸푸르시(DBKL) 등 정부기구와 비정부기구, 지역사회 등이 협력
  - 생명의 강 프로젝트는 양호한 수질 확보, 심미적 기능 회복, 상업지구 및 관광지 조성 등 세 가지 핵심목표를 제시
    - 중앙정부의 관개·배수부서는 수질 확보를 목표로 34억 링깃(약 9,830억 원)의 예산을 110km 길이의 강 정화 사업에 투입

- 쿠알라룸푸르시는 10억 링깃(약 2,900억 원)의 예산을 10.7km 길이인 클랑강~곰박강의 심미적 기능 회복 사업에 집행
  - 연방정부(Ministry of Federal Territories, FTM)<sup>1)</sup>는 클랑강~곰박강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높이고자 상업지구 및 관광지를 주도적으로 조성
- 수질 정화
- 폐기물 수거 및 처리시설 설치
    - 중앙정부의 관개·배수부서는 폐수정화장치(grease trap) 309개, 쓰레기 차단 시설(rubbish trap) 588개, 정수처리시설(clean water treatment plant) 10개, 하천처리시설(river water treatment plant) 15개 설치
    - 부유쓰레기 및 침적(沈積) 폐기물 수거·처리 비용은 한 달 기준 50만 링깃(약 1억 5천만 원)으로 집계
  - 환경오염에 대한 시민 의식 제고
    - 지역 학교와 연계해 환경보호와 수질환경을 보전하는 캠페인 진행
    - 강변 쓰레기 모니터링 및 쓰레기를 수거하는 모임 ‘곰박강의 친구(Friends of Gombak River)’, ‘클랑강의 친구(Friends of Klang River)’를 조직
    - 지역주민들이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수질환경 모니터링 결과를 정부기관에 알리는 시민의 눈(Citizen’s Eye) 운영
    - 지역주민들에게 거주지 근처로 흐르는 강의 이름을 알려 거주지 인근 하천 정화에 대한 의식 제고
- 심미적 기능 회복
- 자전거길 조성
    - 쿠알라룸푸르시청에서 이포 거리까지 2km 길이로 조성된 자전거길은 생명의 강 사업 인근 지역의 역사탐방로를 따라가는 데 주안점을 뒀음
    - 쿠알라룸푸르시는 자전거길을 통해 시민의 건강 증진과 도시환경 개선을 모두 모색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발표
  - 도시환경을 개선하는 벽화 제작
    - 2021년 쿠알라룸푸르시는 근대 쿠알라룸푸르가 형성되기 전 클랑강과 곰박강의 모습을 재현한 벽화 제작
- 상업지구 및 관광지 조성
- 상업지구 확대
    - 생명의 강 사업은 3만 5,000명이 거주할 주택단지외와 2만 8,100평의 상업지구를

1) 말레이시아 연방정부는 연방직할구(쿠알라룸푸르, 라부안, 푸트라자야)를 관할하는 정부

조성해 2만 7,000개의 신규 일자리를 확보할 계획

- 음악분수 설치
  - 말레이시아 국가 음악, 대중가요 등 음악에 따라 울동을 달리하는 분수(Dancing Symphony Fountain)를 설치해 관광명소로 홍보
  - 파란색 조명 아래 안개를 뿜어내는 안개분수 등의 시설을 갖추
- 역사자원 연계
  - 클랑강~곰박강 지역 내 쿠알라룸푸르에서 가장 오래된 모스크부터 완공된 지 100년이 넘는 고등법원, 국립섬유박물관, 로얄슬랑고르클럽 등을 연계해 도보 관광 프로그램을 운영



[사진] 생명의 강 프로젝트(왼쪽부터 음악분수, 자전거길, 벽화) (출처: 월드오브버즈, BASKL)

<https://www.malaysiakini.com/news/488552>

<https://aecom.com/projects/river-life-klang-river-malaysia/>

[https://klfoodie.com/river-of-life-mural-masjid-jamek-malaysia/#The\\_Dream\\_Team\\_Behind\\_KLs\\_Famous\\_Street\\_Art](https://klfoodie.com/river-of-life-mural-masjid-jamek-malaysia/#The_Dream_Team_Behind_KLs_Famous_Street_Art)

<https://www.gec.org.my/index.cfm?&menuid=396>

홍성아 통신원, tjddk4277@gmail.com

## 공공시설을 전통과 자연이 융합된 ‘열린 성(城)’ 구조로 건축

중국 청두市 / 도시계획·주택

중국의 저명 건축가 류자쿤(劉家琨)이 설계해 건축한 서촌대원(西村大院)은 세계 최대 규모인 베니스비엔날레 국제건축전에서 ‘주제관’으로 선정될 정도로 혁신적인 구조와 기능을 갖춘 공공시설. 서촌대원의 한 면은 보행 도로로 누구나 쉽게 들어가고 나가며 오갈 수 있는 ‘열린 성(城)’ 구조로 설계되어 있음. 서촌창의산업원과 베이썬북로 거리주민위원회가 입주한 공공 건물이지만, 주변에 사는 주민이거나 청두 시민이라면 누구나 걷고 뛰고 놀고 쉴 수 있는 공간임

### 베니스비엔날레 국제건축전의 ‘주제관’으로 선정

- 2016년 세계 최대 규모로 열린 베니스비엔날레 국제건축전에서 중국의 공공시설인 서촌대원(西村大院)이 ‘주제관’으로 선정되어 초대
  - 서촌대원은 중국의 저명한 건축가인 류자쿤(劉家琨)이 쓰촨(四川)성 청두(成都)시 칭양(靑羊)구 정부와 시영(市營) 베이선(貝森) 투자그룹의 의뢰를 받아 설계하고 건축한 서촌창의산업원(西村創意產業園)과 베이썬북로 거리주민위원회(街道居民委員會)의 건물이자 편의시설
    - 2010년 1월에 착공하여 2015년 1월에 완공했는데, 공사 과정에서 대대적인 녹화(綠化)사업을 벌이고 대나무를 옮겨 심는 데 많은 시간을 투자
  - 서촌대원의 전체 건축면적은 13만 5,552㎡에 달하고 평균 높이는 24m이며, 층수는 지상이 5~6층이고 지하는 2층
    - 전체적으로 막힌 사각형 구조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한 면이 사람, 자전거, 킥보드 등이 오고 가는 보행로가 있는 열린 구조



[사진] 서촌대원 건물의 한 면에서 바라본 마당 공간 (출처: 위키미디어)

## 자연, 주변과 융합한 '열린 성(城)' 구조의 공공시설

- 서촌대원이 있는 베이썬북로1호에는 본래 1980년대와 90년대에 지어졌던 테니스장, 실내 수영장, 골프 연습장 등이 베이썬북로 거리주민위원회(街道居民委員會) 사무실 및 문화센터와 함께 있었음
  - 칭양區 정부는 청두市 정부가 새로 설립하는 시립(市立) 창의산업원을 유치하기 위한 공공기관 건물을 짓고, 주변 아파트단지에 사는 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는 공공 편의 시설로 기능할 수 있는 서촌대원을 건축가인 류자쿤에게 의뢰
    - 류자쿤은 서촌대원을 중국의 고대 성(城)과 같은 구조로 설계하되, 한 면은 보행 도로로 하여 누구나 쉽게 들어가고 나가며 오갈 수 있는 열린 성으로 만들. 또한 1990년대에 지어져 사용하는 데 문제가 없는 실내 수영장은 남겨서 리모델링함
- 서촌대원의 가운데는 거대한 마당으로 조성해, 자연 속에서 융합하여 사는 성(城) 안 주민들의 생활터전을 형성화
  - 서촌대원의 마당 공간에는 리모델링한 실내 수영장뿐만 아니라 야외 축구장 3개와 실내 테니스장, 농구장, 배드민턴장 등을 새로 건설했고, 곳곳에 쓰촨을 상징하는 대나무<sup>1)</sup>를 옮겨 심어 울창한 숲을 조성
    - 옛 쓰촨인들이 대나무 아래에서 차를 즐겨 마셨던 생활 풍습을 고려하여, 차관(茶館)을 대나무숲 단지에 집중 유치해서 운영



[사진] 밤에 하늘에서 드론으로 찍은 서촌대원 (출처: 위키피디아)

1) 중국에만 사는 동물을 판다는 대나무 잎과 죽순을 먹는데, 쓰촨숲에 대나무가 많아 전체 판다 중 97%가 서식

## 누구나 걷고 뛰고 놀고 쉴 수 있는 공공시설

- 류자쿤은 서촌창의산업원에서 일하고 작업하는 젊은이들이 제대로 창의성과 도전 정신을 발휘하려면, 평소 다양한 사람들과 부딪히고 교류해야 현실에 바탕을 둔 창조적인 성과물이 나온다고 생각
  - 서촌대원의 한 면 건물은 서촌창의산업원의 사무실이자 작업공간이지만, 다른 한 면 건물은 식당, 패션, 휴식 등, 다른 한 면의 건물은 놀이, 레저, 스포츠 등과 관련된 가게, 매장, 시설이 입주해 있음
    - 서촌대원을 방문한 사람은 사방으로 연결된 큰 보행로로 건너나 뛰거나 자전거, 킥보드 등을 이용해서 목적지까지 이동할 수 있음. 또한 보행로의 곳곳에는 의자와 탁자가 배치된 공간이 있어 누구나 쉴 수 있음
  - 건물 한 면과 한 면을 잇는 부분에는 대형 영화관, 미술관, 공연장 등이 만들어져 다양한 문화와 예술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배치
    - 지하에는 거대한 주차장을 건설해 평소 서촌대원을 찾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주변 아파트단지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도 개방해, 베이썬북로 일대의 고질적인 주차난까지 해결

<https://baike.baidu.com/item/成都西村大院/15584265>

<https://zh.wikipedia.org/wiki/西村·贝森大院>

<https://www.youtube.com/watch?v=vX06vXrXV0I>

## 세계도시동향 제528호

**발행인** 박형수  
**발행처** 서울연구원  
06756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340길 57  
02-2149-1234  
www.si.re.kr  
**ISSN** 2586-5102  
**발행일** 2022년 7월 11일

---

세계도시동향은 서울시 정책 개발과 도시 관련 연구에 참고할 가치가 있는 해외 주요도시의 정책사례와 동향을 소개하는 정기간행물입니다. 세계 각지에서 활동 중인 해외통신원들이 시의성 있는 사례와 정확한 현지 정보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세계도시동향에 관한 문의나 건의사항이 있으신 분은 서울연구원 도시정보실 출판팀 세계도시동향 담당 (trees29@si.re.kr)에게 연락 바랍니다.

ISSN 2586-5102

06756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340길 57

02-2149-1234

[www.si.re.kr](http://www.si.re.kr)